

역사를 전진시키는 힘

작성일 : 2012. 01. 05. (목) 오전 11:11 ~ 11:42

작성자 : 김효정

* 살다 보면 어느 날 홀연히 짐승이 사냥꾼의 땃에 걸리는 날이 있듯이 삶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의 사건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께 딱 붙어야 하는데, 나약한 인간은 순간 낙심과 좌절의 늪으로 기어들어가 현실을 도피하고자 주님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잠으로 숨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선생님의 육의 묶임...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선생님께도 하늘이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적 사건인데...어떻게 그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을 극복하시고 역사를 전진시키실 수가 있었을까? 어떤 순간에도 꺾을 수 없는 의지의 근본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였습니다. 이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

예수님 말씀

내게 집중하여라.

세상 파도 너머

그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나에게 간구하여
너의 생명을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라.

파도는 마음으로 잔잔케 할 수 있다.

환난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에 있다.

세상 파도를 바라보면 파고는 날로 높아지고

세상의 모든 운행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중심을 잡아

파도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찾게 된다.

중심자를 향한 악평을 다스리는 것도

너의 마음에 있다.

네가 다스릴 수 있다.

나의 생각을 네 마음이 붙들면

악평의 본질이 바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늘 섭리를 만나

하늘 궁전에서 맺은 사랑의 시간을 되돌아보아라.

한 개인의 삶도

그 속에 웃고 울었던 모든 시간들을 버릴 수 없고
그 삶의 결과에 열매 맺지 못한 어떤 것도
쉽게 버려지지 못하며
다시 살리고자 애쓰며 방법을 찾게 된다.

긴 시간의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시간이 흘러간 만큼이나

내 사랑의 손길이 닿아 있으니

한 사람의 인생도 가치 없다 버릴 수 없다.

내 사랑과 정성과 기도가 스며 있기 때문이다.

내 목숨과 바꾸었기 때문이지.

역사를 전진시킬 수 있는 힘을 물었느냐?

그건 '시간'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정성'이다, '생명'이다.

오늘 섭리의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섭리인들의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움직이면 전진이고

꿈틀대기만 해도 앞으로 나아가니

생명이 있는 한 기어서라도

완전의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것이다.

포기함이 역사의 단절이며 깨어짐이지

환난은 역사를 중단하게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정녕코 뜻한 바를 이루시는 것으로 정하셨기에.

아담 하와의 타락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충격적 사건이었다고 할지라도,

내 육신의 십자가형이

치명적인 역사적 비극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네 선생이 나의 육으로 섭리를 총지휘하다가

육신의 갇힌 바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역사를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인류를 존재하도록 했다면

그 시간은 인류의 영원한 축복이며 재산이다.

섭리역사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삶이니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다.

초인이 되어 섭리사를 지키고 이끄는 네 선생은
육의 죽음이 닥쳐와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역사의 불꽃을 이어가게 하는 정신의 소유자이기에
나는 그와 함께한다.

섭리역사를 만난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내 신부로서의 자신을 진정 받아들인다면
그 인생의 시간에 내 사랑이 함께 얹혀 있으니
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의 시간도 포기하면 안 되고
역사를 걸어온 의지도 절대 꺾으면 안 되는 것이다.

어제와 달리 움직이면 이 또한 전진이니
나와 함께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네 인생의 시간에는
내 사랑의 정성과 너를 향한 눈물의 기도와
소망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라.
네 인생은 너만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시간인 것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
오직 전진하는 것이다.